"근로자의 건강은 곧

인천기계공단의료보험조합

◀ 여러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내 기생충 검사율 100%를 달성해온 원 지선대리

『전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건협에서 너무 크게 생각해 주시는 것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읍니다.』

기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굳이 자신은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말로 인천기계공단 의료보험조합의 元池善 급여대리는 입을 연다.

인천 기계공단 의보는 '77년에 설립. 조합원 112만명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주어왔다.

元대리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82년 3월부터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건협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특히 기생충검사사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죠. 학교와는 달리 기생충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장 실무자들이 채변봉투 수집을 귀찮아 하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수집작업이 어려웠읍니다. 더구나 기생충감염율이 현저히 감소된 지금부터는 그러한 풍조가 더 심해질 겁니다.아직 기생충검사를 전면 폐지할 때는 아닌데……』

앞으로의 기생충검사사업에 대한 걱정까지 하는 그는 그러한 사업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100%의 검사율을 나타낼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관심은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전체 조합원의 건강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비절감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건강검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84년부터는 급여과장님과 함께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건강검사의 필요성과 방법을 홍보해왔읍니다.』

그는 조합업무와 건강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면서,

국가발전의 초석입니다"

급여대리 元 池 善씨

『건협이 하는 일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87년에는 각 사업장 근로자 신체검사를 건협과 함께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 전체 조합원의 건강검사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들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관심과 노력은 그쪽으로 쏟아질 것이라면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위의 동료들이 『원대리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인지, 다른 조합에 비해 인천기공의보는 해당 사업장과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주위에서 또 그를 이렇게 얘기한다.

『일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元대리는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죠.』

자신의 생활신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원대리는, 『의료보험조합은 결코 조합원에게 불편을 주는 기관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봉사기관으로서 이나라 발전의 초석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기자를 뭉클하게 했다.

▲의료보험조합은 철저한 봉사기관 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혼신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협이 좋아서라기 보다 건협에서 하는 일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의 발전이 결코 우리 조합의 사업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동검진버스가 보다 많은 사업장을 순회하고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해 낼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건협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